

간호학 이론 정립 위한 연구촉진제 돼줘야



간호교육자의 입장에서

서울의대간호학과 전강 이 소 우

“看護의 ‘看’字도 몰랐는데 看護學科를 지망했어……” 굳이 대학입학時 상황을 변명하든 시절이 있었다. 누구를 향한 공격심에서인지, 아니면 덜 성숙된 자아에서 생긴 열등의식으로 부터의 설명인지를 되풀이 했던 학생시절로 부터 어언 10여년이 지난 오늘 또 한들은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간호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육자가 되었다. 이번 동기보호한 看護入門으로 시작된 내가 어찌 외람되이 教育者然 하는 소리를 외칠 수 있으랴. 더욱이 送年에 즈음해서라면 문제는 또 복잡하게 나를 “인간 소외”에 잠깐 머무르게 만든다. —송년에 한마디—는 그 살아온 일년을 적어도 살살이 아니면 적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계에 대비한 평가를 포함해야 될 줄 안다. 우연히도 나는 이런 共同反省을 위해서는 지나고 있는 이해의 반년을 짚아, 늦게 출발했던 “이거적인 自我完成”만을 가졌던 시절에다

반년을 부쳐야 할 것이다.

지난 일년의 내주위의 변화가 어쨌던 다시 공동성찰로서의 책임을 풀어보자.

現今 환자의 개념으로 부터 인간의 개념으로 다시 한국환자의 개념으로 부터 우주적 인간의 개념으로 看護學의 깊은 知性을 左之右之하게 하는 것을 어찌 조상탓으로만 돌리랴! 이런 시절에 간호이론을 위한 간호계에서의 몇몇 세미나는 도약하는 看護人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한다. 동양의 인간, 서양의 인간이 외형과 문화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아픔을 인식하는 표현과 원인(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종족, 문화배경에 따라 Pain Thresold가 다르다는 이론을 고려않고)이 다를 수 없고, 생물학적 육구와 행동표현의 이해가 다를 수 없다. 간호학에서 다루는 인간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많은 이론정립에 대한 연구촉진이 있어야겠다. 관계성 없는 서양이론의 재탕만 할 필요 없다고 외면하기에는 한국의 현실적 理論 지도자의 빈약을 인정 반성해야 되며 토착화가 필요한 방법론적 임상 연구는 통계처리 등을 이용한 부분적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

바라건대 포괄적 인간의 이해가 범우주적이어야 한다면 앞서가는 나라의 이론을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며 연구를 계속한다면 빈약한 이론적 배경으로 인한 간호교육자의 양심을 보상하는 길이요 약속있는 간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협회란 같은 길을 같은 목적으로 가고있는 여러명의 “내”가 모여 “나”의 의사, 편익을 위해 주는 곳이라는 가정아래 “협회”란 말대신 “우리”에게 바라는 말로 대신하였다.